

■ 2024년 한국 작고문인 선양사업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 2024년 한국 작고문인 선양사업 지원심의
- 회의일시 : 2024년 6월 25일(화) 13:00~15: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세미나3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강지희, 김미정, 방재석, 신덕룡, 심진경

고전은 시대를 역동적으로 바라보는 눈에 의해 다시 발견된다. 우리는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대한 흐름은 나를 넘어 어디에서 발원했는가. 삶과 더불어 날카롭고 무자비해지는 질문들에 여전히 생생하게 응답해오는 작품들이 고전이 된다.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작품들에 기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지 정할 수 있고, 더불어 멀리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고전의 재발견의 필요는 한국작고문인 선양사업의 취지의 저변과도 맞닿아 있을 것이다.

올해 한국 작고문인 선양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문인은 시인 김소월, 소설가 염상섭이다. 근대문학의 초석을 놓았으며 민족 작가로서도 손색이 없는 이들이지만, 그 시선과 문장에 투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있어 언제든 다시 들여다 볼만한 작가들이기도 하다. 이들의 작품에는 위험하게 아름다운 기교가 아니라, 오래 깊이 사유한 이들이 담백하게 쌓아올린 문장이 보여주는 품위가 있다. 시대에 밀착하면서도 성급하게 판단 내리지 않고 넓게 사유의 틀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한국문학의 오래된 유산을 발견한다.

심사과정에서 염두에 둔 것은 작고 문인을 지금의 시대와 맞닿아 새롭게 사유하며 재해석하려는 의지와 해당 문인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도였다. 사업 내용의 구체성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 평가와 함께, 이번 사업을 위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들에게 장기적인 향유 방식으로 이어가게 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다.

이번 사업에는 학술 단체로부터 상당히 많은 신청이 들어왔다. 심사위원들은 이들의 전문적인 관점과 역량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학술세미나와 다르게 어떤 새로운 연결과 해석의 관점이 들어갔는지를 살피고자 했다. 연구장을 넘어 어떻게 해당 작가를 대중과 함께 향유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공연과 관련해서는 의욕적이고 흥미로운 기획이 많이 제출되었다. 공연 단체의 역량이나 대중의 소구력 역시 돋보였다. 다만 작가와 작품에 대한 관점이나 해석이 추상적이고 미비한 지점들이 있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문학 전문가가 지원되어 더 구체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로 이어지길 바란다.

다는 권고가 있었다.

이번 심사의 선정 과정에서 고민과 아쉬움으로 남은 것은 지금 시대에 빼놓을 수 없게 된 영상 콘텐츠 부문에 대한 것이었다. 여러 행사들을 영상으로 담아 남기는 방식을 넘어, 장기적으로 대중들이 향유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가 전문적인 시선과 손길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 가능하다면 이 사업이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진행되고,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작고 문인에 대한 수준 높고 매력적인 영상 콘텐츠를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지원 사업으로서 그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지원해주신 많은 단체에 깊이 감사드린다. 사업 취지에 동감이 가는 가치 있는 계획안들이 많았으나, 한정된 예산의 한계로 인해 모두 지원할 수 없었던 점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작가는 그 수명이 한정되어 있지만, 그 목소리의 생생한 힘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 목소리를 섬세하게 온전히 다시 살려내는 가능성을 품은 이 사업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

2024년 한국 작고문인 선양사업 심의위원 일동